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I. 교환 파견 동기

1.1 지원 동기

교환학생을 파견에 저에게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졸업 전에 학교 뽕을 뽑아 보고 싶다는 마음, 두 번째는 미국생활이 궁금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등록금을 내고, 장학금도 받으며, 해외대학의 수업을 듣고, 생활을 해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환학생은 졸업 전에 해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한 것이 마음을 먹게 된 부분에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2 프로그램 목적

요즘 미국 물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장학금을 고려하더라도 재정적 지출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가야 할 이유가 뭐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정말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는 교수님 중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조언을 잘 해주실 것 같은 교수님을 찾아보었고, 그 교수님께서 "내 나이가 쉰이 넘었는데도 이따금 해외를 나가게 되면 많은 영감을 얻고 온단다. 너 나이에 그런 경험은 삶에 꽤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것은 가야 할 이유를 찾는게 맞는 것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게 맞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별 목적 없이 지원했고, 그렇기에 막상 상황이 닥치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점은, 다른 시스템 속에서 살아본다는 경험은 대학생에게 있어서 이것저것 많은 데이터가 됨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3 프로그램의 목표

평소에도 그리 건강한 사람은 아닌지라 - 교환학생을 나가기로 마음 먹은 이후에, 교환학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건강하게 다녀오기", "미국에서 앰블런스 타서 파산하지 않기"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2.1 학교 선정 이유

교환학생 지원 당시 저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꽤 단순한데, 영어라 말이 통하고, 영국은 어렸을 때 가봐서 미국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미국 중에서도, 동부와 서부는 이전에 가본 경험이 있어, 중서부의 대도시인 시카고 근처로 교환학생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근처 학교를 조사했고, 그 중에서도 수강 제한이 적은 Purdue University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2 인디애나특징

미국의 초기 영토 중 동부 해안을 제외한 부분을 중서부라고 부릅니다. 대략 5대호 근처 부근을 중서부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urdue University가 있는 인디애나 주 역시 중서부로 묶입니다.

(i) 날씨

미국 중서부는...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잔뜩 내리고 쌓이면, 그 눈이 다 녹기 전에 눈이 새로 옵니다. 정말 눈이 무한리필 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일교차와 연교차가 심한 내륙 지방인데, 눈까지 많이 와서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ii) 치안

Purdue University는 West Lafayette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대학교가 근처인 Campus city입니다. 우선, 캠퍼스와 인근 동네는 매우 안전합니다. 자정 넘어서 걸어서 캠퍼스를 돌아다닐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길에 한국인 유학생 분들이 놀고 계시는 장면도 꽤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Campus와 근처는 학교에서 따로 고용한 치안유지직원 분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계십니다. 강 하나 건너면 Lafayette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는 homeless들이 도로에 누워있는 장면이 이따금 포착됩니다. 또한, 시카고는 대마초가 합법인데, 인디애나 주는 대마초가 불법이라, 마약에 노출될 확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대마초 냄새가 나니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iii) 인근 구경거리

캠퍼스 근처에는 한 3블록짜리 상권이 있습니다. 해당 상권에는 한식집도 있고, H마트도 있습니다. 마라탕 집도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한 미국의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약 10분 가면, 한식집들이 이곳저곳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되지만, 편도 30분은 잡고 가야 하여 차 있는 친구를 사귀면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니기 용이합니다.

그 중소도시를 벗어나면, 옥수수 밭이 있습니다.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타고 가며 1시간 쯤 옥수수밭과 풍력발전기가 산 하나 없는 평원에 도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 조금은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iv) 근처 여행?

해당 대학교를 저는 시카고 근처라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까지는 차를 타고 2시간 반이 걸립니다. Uber를 타면 30만원이 깨지고, 고속버스를 타면 약 3시간이 걸리는데, 같이 타시는 분들이 미국의 빈곤층 분들이라 꽤나 위험한 분위기입니다. (가격은 엄청 사악하지는 않습니다. Flixbus나 Greyhound 앱을 깔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버스 모두 타 보았는데, Flixbus를 압도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가격차이가 거의 없지만, 좌석의 상태 같은 부분들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가기가 꽤 힘듭니다. 공항을 가고 싶으시다면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을 추천드립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3.1 학교 이메일

일단, 학교 이메일이 생길 겁니다. ~@purdue.edu 라는 이메일이 생길텐데, 이것을 Gmail에서는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indow에 자동으로 깔려있는 Outlook이라는 앱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강신청, 기숙사 같은 것들이 서울대에 비해 매우 빠른 시기에 진행됩니다.

다. 그래서 보험, 수강신청 같은 부분들 신청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Purdue 쪽 메일에 반드시 로그인을 하고 메일함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3.2 숙소 관련

최초에 기숙사 신청을 받을 때, 선호하는 방 유형들을 물어봅니다. 저는 반드시 bedroom은 혼자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partment 같은 곳도 다 bedroom은 혼자 쓰길래, 1~9순위 중 5순위 즈음에 Apartment를 넣어 놓았는데, Apartment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선정에 있어서는 운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Apartment를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월 1400달러를 받습니다. (4달 5500달러 정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인근 studio (서울대 입구역처럼 혼자 1 bedroom, 1 bathroom 쓰는 방)에 자취하시는 한인 분들은 월 1000달러를 낸다고 합니다. 정말 비쌉니다. 혼자만의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후회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혼자 자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Apartment에 사는 것을 고심해보세요. 그리고, 시설 관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약 4달을 살면서, 배수관 공사를 통보하지 않고 진행하여 갑작스럽게 Final exam week에 2일간 단수가 된 적이 있었고, 밤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히터가 작동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청결 상태도 꽤 떨어지는 편이고, Dormitory에 비해 전반적인 시설이 낙후된 편입니다. 가격은 훨씬 비싸고요. 이게 아마 학교 외부 민간 업체가 학교를 상대로 계약을 따서 진행하는 식이라고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비싼 반면,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Apartment에 걸리셨다면 입주에 대해 고심해보시길 바랍니다.

3.2 파견 대학 지불 비용

미국에 가기 전에 지출한 비용만 간단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오헤오 공항 -> Campus Shuttle 가격: \$55 (학교에서 운영하는 Shuttle 입니다)

의료보험: 720\$

기숙사비: 5480\$

Meal Plan (학식, 주 14끼): 2781\$

BGRi(OT비용): 375\$

거래 수수료: 359\$ (해외 거래를 하다보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1 Visa 발급비용: 220\$ (Sevis), 185\$ (MRV)

IV. 학업

4.1 수강 과목 선정 팁

수강신청 방법은 다른 글에도 잘 나와있고, 메일로도 받을 테니, "학기 시작 약 4달 전에 수강신청을 받으니, 인지하고 있으십시오"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유용한 사이트들 몇 가지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s://boilerclasses.com/> Purdue University의 수업 목록을 확인하기 좋은 사이트입니다.

<https://www.boilergrades.com/> Purdue University의 모든 수업의 성적분포가 나온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들을 참고하면, ratemyprofessor 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4.2 수강과목 팁

저는 영어가 짧아 전반적으로 수학 과목들을 수강신청 했습니다. 느낀 점을 공유 드리자면, 서울대생 분들이 압도적으로 더 잘하니, 그냥 들어보고 싶은 과목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중요한 개념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전개되다 보니, 그냥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한다면, 성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보다 적은 노력 투입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4.1에 첨부한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처럼 첫 주에 Adviser을 통해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으니, 듣고 싶으신 과목들을 잡지 못하셨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3 외국어 습득 요령

저는 제 Apartment를 같이 쓰는 룸메이트들과 놀았습니다. 4명에서 아파트 하나를 썼는데, 모두 교환학생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영어가 그리 자연스럽게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면 두번 세번 천천히 말해주고, 듣는 사람도 듣기 위해 애써서 소통에 큰 장애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Passport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교환학생이나 international student들을 놀아주는(?) 동아리입니다. 친구를 사귀고자 하면 해당 동아리를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팀플이 있는 교양수업을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 룸메이트 중 한 명은 Jazz club에 가입해서 그 곳에서 열심히 놀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4 유용한 정보

Purdue University를 온 다른 서울대 학우분들을 보니, 다들 학업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랩인턴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환학생 합격 직후에 최대한 빠르게 Cold mail이라도 보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Outlook의 ~@purdue.edu 메일로 보내셔야 교수님들께서 연락을 잘 받으실 것 같습니다.

V. 생활

5.1 의료 관련

저는 약을 엄청나게 많이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환학생은 보통 4달을 체류하고, 중서부가 연교차 및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약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PUSH라는 학생 보건소가 있고, 그곳에서 진료가 가능한 Nurse 선생님들께서 보험을 들었을 경우 무료로 진료 해주십니다. 약은 유료이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그리 사악하지는 않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것 같지만, 저는 2번 정도 갔는데, 모두 3일 안에 예약이 열려 있어서 제 때에 갈 수 있었습니다.

5.2 물가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 비해 가격이 물건은 2배, 인건비가 포함된 서비스는 2.5배 잡으시면 됩니다.

먹을 것의 경우, 근처 Target이나 학교 BoilerMarke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al Plan을 신청하셨을 경우, Dining Dollars가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칩필레와 BoilerMarket에서의 먹을 것들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 Ezfare라는 앱이 있으면, 왕복 1달러 혹은 2달러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카고 같은 곳을 가는 고속버스의 경우, 가격이 꽤 올라갑니다. (이전에 언급한 앱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전화의 경우, 저는 Mint Mobile을 써서 한 달에 약 15달러를 냈습니다. 그러나, 갤럭시의 경우, Physical Sim을 사야 하는데, 저는 이것을 BestBuy에 가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Best Buy까지의 거리가 꽤 멀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고급 통신사를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캠퍼스에서 Mint Mobile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4달동안 개통하는 것이라면, 비용이 다른 비용에 비해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주므로,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서울대학교의 좋은 프로그램과 장학금이라는 지원을 통해 해외에 나가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조언을 구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바도, 목표도 없이 "그냥 뭐든 되겠다" 하고 그냥 나갔지만, 막상 돌아보니 관성적으로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다 보면 이런 저런 다양한 기회(인간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다양한 면에서)들을 마주치게 되는 것 같고, 여기로부터 무엇을 얻어갈지는 본인이 가진 방향성과 행동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그 이후로 어디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하며 인생이 어느 정도 고착 상태에 빠졌는데, 저 자신에 대해 새로운 데이터들을 얻게 되면서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게 된 교환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제공해주신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제처 직원분들과 이혁주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